

‘Public for All: Rethinking Shared Space in NYC’ 공모전 수상작 발표

<http://designtrust.org/news/winners-2017-call-project-ideas/>

<http://southbronxunite.org/a-waterfront-re-envisioned/>

<http://www.nyc.gov/html/dot/html/pedestrians/nyc-plaza-program.shtml>



모트 헤이븐-포트 모리스
워터프런트 개발 프로젝트 계획

자료: <http://southbronxunite.org/a-waterfront-re-envisioned/>



뉴욕시 보행광장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된 광장

자료: <http://www.nyc.gov/html/dot/downloads/pdf/westchester-sq-workshop-june2017.pdf>

뉴욕의 공공공간 확장에 기여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기리기 위해 ‘Design Trust for Public Space’*가 개최한 ‘Public for All : Rethinking Shared Space in NYC’ 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모트 헤이븐(Mott Haven)-포트 모리스(Port Morris) 워터프런트 개발 프로젝트

사우스브롱크스(South Bronx)는 뉴욕의 대표적 빈민가로 경제적·환경적 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이었다. 강을 따라 들어선 화력발전소, 폐기물 운송시설, 디젤 트럭이 모여드는 사업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해쳤고** 38%의 주민과 49%의 아이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업률도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곳에 곧 상업건물과 호텔,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설 개발이 예정되고, 워터프런트 공공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재생 계획도 발표되는데, 이때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LT) 모델이 활용된다. CLT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조직이 지역 땅을 소유·관리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커뮤니티나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누릴 수 없던 워터프런트 공공공간을 되찾아 주는 과정에서 CLT 모델을 통해 커뮤니티의 필요를 우선으로 하는 개발을 실천하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욕시 보행광장 프로그램(NYC Plaza Program)

뉴욕시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플라자 프로그램은 모든 시민에게 10분 거리 안에 양질의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에 이용되지 않는 가로 공간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게 되는데, 이때 DOT가 지역 기반의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에 필요한 공간 설계와 조성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관리는 지역 기반 조직이 직접 하게 된다.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안전한 공공공간을 원하지만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열린 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정부기관, 커뮤니티 그룹과 협력해 뉴욕의 공공공간 확장과 도시경관 변화를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 이 지역 주민의 천식 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8배나 높았다.

밴쿠버,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주택임대제도 개편

<http://vancouver.ca/news-calendar/city-introduces-regulations-for-short-term-rentals.aspx>

<http://vancouver.ca/news-calendar/vancouver-takes-steps-towards-legalizing-short-term-rentals.aspx>

밴쿠버시는 임대 주택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기임대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고, 올가을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추가 수입원이 되고 있는 에어비앤비(Airbnb), 익스피디아(Expedia) 등을 이용한 단기임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안의 주요 골자는 ▲단기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세와 개설비(activation fee), 임대료에 대한 세금 및 임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며 ▲단기임대가 가능한 대상을 주거주지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기임대 사업자가운데 70%가 합법화되고, 합법적 등록이 불가능한 1,000개 가구 이상이 장기임대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레고어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 시장은 “비즈니스의 대상보다는 우리 삶의 터전으로서 주택을 바라보고 이에 따른 주거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임대에 대한 이번 규제안이 시의 임대 주택난을 해소하면서도, 주민들이 단기임대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라고 설명하였다.

단기임대 규제안 주요 내용

- 단기임대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 면허(business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세(매년 4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작 시 1회 개설비 54달러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
- 단기임대 사업자는 단기임대 관련 사이트에 반드시 부여받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사이트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 광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단기임대 사업자는 안전하고 지역에 알맞게 건축하여야 하며, 단기임대 광고 및 예약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단기임대 허용 공간을 주거주지로 한정하고, 지하 아파트나 별채(second homes), 뒤채(laneway homes) 등 부차적 주거지는 단기임대가 불가하도록 정한다.
- 단기임대 사업자와 단기임대 플랫폼 운영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임대료의 최대 3%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시는 “규제안 발표 이후 단기임대에 긍정적인 영향과 규제의 파급력에 대한 의견을 들 수 있었다”면서 “단기임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단기임대가 장기임대 공급을 초과하고 임대료 상승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추가수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새 법안의 시행을 계속해서 추진할 뜻을 밝혔다.

틸뷔르흐,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 시범 운영

<https://www.tilburg.nl/actueel/nieuws/item/voetgangersapp-helpt-inwoners-veilig-oversteken/>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7/jul/12/dutch-app-elderly-hack-pedestrian-crossings>

도시를 걷다 보면 녹색신호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채 건너지 못해 곤란해하는 노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위험하게 길을 건너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네덜란드 틸뷔르흐(Tilburg)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 덕분이다.

틸뷔르흐 시의회는 기술 혁신을 접목한 교통안전 제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을 배려한 슬로 트래픽(slow traffic)을 표방하는 ‘교통 접근성 2040(Mobiliteitsaanpak 2040)’ 계획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을 마련해 약 3개월간, 도시에 사는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다.

시범 운영 대상이 된 노인들은 ‘크로스워크(Crosswalk)’라고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된다. 네덜란드 회사 다이니크(Dynniq)가 개발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GPS, 신호등의 센서와 연동되어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면 녹색등이 지속되는 시간을 조절하게 된다. 보행자의 이동 능력에 따라 네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데, 이 설정에 따라 녹색등이 연장되는 시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러한 옵션을 통해 다른 교통 통행이 영향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였다. 다이니크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간 조절 애플리케이션, 시각 장애인에게 신호등의 색상을 음성이나 진동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올가을에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시의회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성공적인 경우 2주에 1기의 속도로 신호등의 스마트 시스템 설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멜버른, 도시 건축물 정보 3D 지도로 제공

<http://www.melbourne.vic.gov.au/news-and-media/pages/melbournes-future-buildings-in-3d.aspx>

https://developmentactivity.melbourne.vic.gov.au/?_ga=2.126960141.1843065196.1501662889-1786237525.1478847107

멜버른시가 시의 기존 건축물과 향후 들어설 건축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3D 지도 서비스 'Development Activity Model'을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멜버른에 현존하는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이 승인된 건축물, 시공 중인 건축물, 허가가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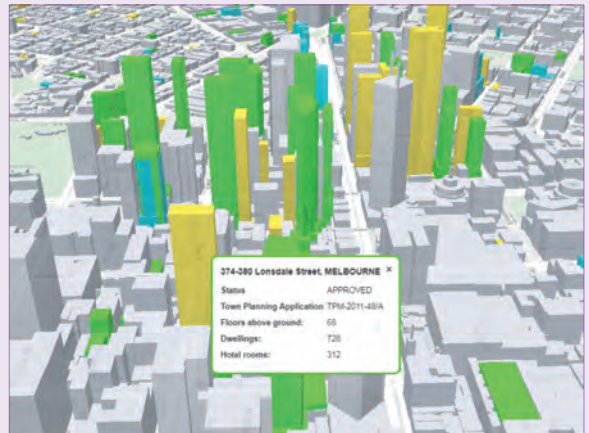
로버트 도일(Robert Doyle) 멜버른 시장은 "이번에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글어스(Google Earth)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미래에 지어질 건축물도 함께 보여준다는 면이 다르다"면서 "시에서 진행되는 건축·개발 행위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서비스이고, 호주의 도시 가운데 이러한 모델링 서비스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멜버른시가 최초"라고 강조하였다.

이 3D 지도는 시정부가 승인한 개발을 포함하여 멜버른 전역의 모든 개발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도상 기존 건물은 회색, 승인된 건물은 녹색, 건설 중인 건물은 노란색, 허가가 진행 중인 건물을 파란색으로 나타낸다. 시는 2002년부터 주거 및 상업 개발을 추적해 왔으며, 이번 서비스의 개발로 앞으로 개발에 대한 모니터링을 3D로 수행하게 된다. 서비스의 데이터는 매월 업데이트하여 대중들이 멜버른의 개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Development Activity Model' 서비스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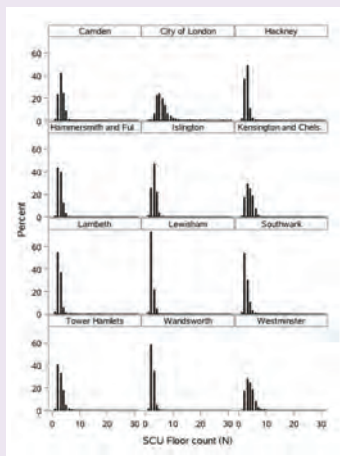
자료: https://developmentactivity.melbourne.vic.gov.au/?_ga=2.126960141.1843065196.1501662889-1786237525.1478847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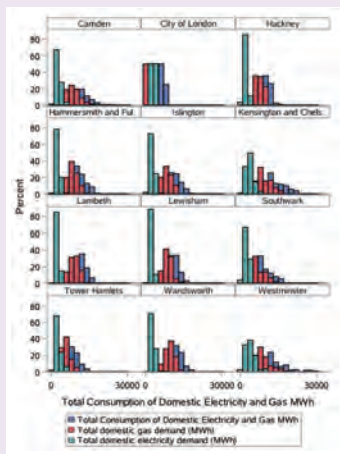
UCL, 건축물 높이와 에너지 소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https://www.ucl.ac.uk/bartlett/energy/news/2017/jun/ucl-energy-high-rise-buildings-energy-and-density-research-project-results>

http://www.ucl.ac.uk/news/news-article/0617/280617_high_rise_low_rise



12개 런던 자치구의 주거용 건물 높이



12개 런던 자치구의 주거용 건물 에너지 사용량

자료: <https://www.ucl.ac.uk/bartlett/energy/news/2017/jun/ucl-energy-high-rise-buildings-energy-and-density-research-project-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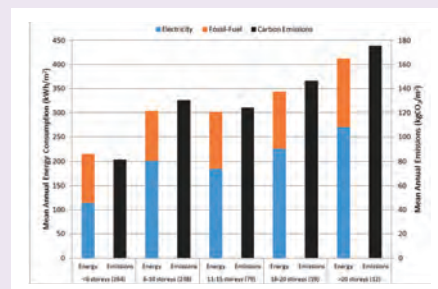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의 에너지연구소(Energy Institute)가 건축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UCL 에너지연구소는 영국 공학 및 자연과학 연구위원회(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의 자금지원을 받아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다양한 높이의 영국 소재 610개 사무용 건물, 12개 런던 자치구 내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6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보다 2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서 바닥 면적의 제곱미터당 전기 사용량이 2.5배 가까이 높았다. 가스의 사용량 또한 높이에 따라 40% 가까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의 양을 고려할 때 고층 건축물이 저층 건축물보다 2배 가까운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필립 스테드먼(Philip Steadman) 교수는 사무용 건물의 경우 에어컨의 사용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완전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사무실 건물은 자연 환기나 기계 환기를 하는 건물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60% 높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샘플에는 에어컨, 자연 환기, 기계 환기를 이용하는 저층·고층 건축물이 모두 포함되었고, 에어컨을 이용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도 고층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가스 사용량은 높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고, 전기 사용량은 그에 비해서는 다소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연구팀은 높은 건물이 받게 되는 물리적·기상학적 영향이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추정하였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온도는 낮아지고 평균 풍속은 증가한다. 한 지역에서 다른 건물들보다 높게 솟아 있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강한 바람과 직사광선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도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가설이며,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후속 실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무용 건물 높이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

브리스톨의 ‘플레이아웃’ 프로젝트,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 분석

<http://playingout.net/street-play-is-good-for-health-and-communities/>

<https://www.bristol.gov.uk/streets-travel/playing-out>

<http://playingout.net/wp-content/uploads/2017/07/Playing-Out-Survey-Report-2017.pdf>

어린이들이 동네 거리에 나와 놀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 동안 거리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플레이아웃(Playing Out)’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플레이아웃은 영국 브리스톨의 몇몇 부모들이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커뮤니티 통합과 소속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프로젝트는 큰 관심을 받게 되고, 2011년 브리스톨 시의회가 TPSO(Temporary Play Street Order)를 마련해 제도화하고 플레이아웃 프로젝트를 본인의 지역에서 실행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을 지원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신청을 한 지역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번, 최대 3시간까지 대상이 되는 거리의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데,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영국 전역의 500개가 넘는 거리에서 플레이아웃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처음 플레이아웃 모델을 구상하고 현재 신청 지역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플레이아웃 세션 참가자와 네트워크에 참여 중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플레이아웃 프로젝트 설문조사 주요 결과

- 대다수의 응답자가 거리에서 노는 행위를 통해 자전거 타기(80%),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기(88%) 같은 신체적·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skill)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 91%의 응답자가 플레이아웃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의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84%가 공동체에 대해 더욱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 응답자의 30% 이상이 플레이아웃 외에 다른 커뮤니티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플레이아웃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거리의 모습

자료: <http://playingout.net/>

바르셀로나, 퍼스널 모빌리티의 상업적 대여 규제

http://eldigital.barcelona.cat/en/limited-routes-for-segway-tours-in-ciutat-vella_542406.html

*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정하는 말로 1인용 전기자동차,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세그웨이 등이 해당되며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인다.

바르셀로나시가 시우타트 베아(Ciutat Vella) 지구 내에서 세그웨이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vehicles)*의 상업적인 대여와 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재에 나선다.

시는 최근 관광객들과 여행자들에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공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세그웨이, 전동 휠, 스쿠터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바퀴가 2개 이상인 사이클은 시우타트 베아 내에 정해진 2개의 경로로만 통행이 가능해진다.

시의원 갈라 핀(Gala Pin)은 “구역 내 공공공간이 균형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새 법안의 목적”이라면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인적 이용이 아닌, 이를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먼저 규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규제는 8월부터 6개월간 시범 적용되며 이 기간 중 규제의 영향과 효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 적용 기간 중 8명의 공무원과 시 경찰관들이 구역 순찰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그웨이를 타는 관광객들의 모습

자료: http://eldigital.barcelona.cat/en/limited-routes-for-segway-tours-in-ciutat-vella_542406.html



시우타트 베아 구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상업적 대여·이용이 허용되는 경로

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도입

<https://www.reuters.com/article/us-hawaii-texting-ban-idUSKBN1AD2LS>

[http://www4.honolulu.gov/docushare/dsweb/Get/Document-189688/BILL006\(17\).htm](http://www4.honolulu.gov/docushare/dsweb/Get/Document-189688/BILL006(17).htm)

호놀룰루시가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보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도입하고, 올 10월 말부터 적용한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손 안의 스마트 기기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족’은 본인과 주변 보행자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호놀룰루시는 미국의 대규모 도시로서는 최초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게 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e-리더 등도 보행 중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 기기에 포함되며 벌금은 15달러에서 99달러 사이에서 부과되는데, 적발 횟수가 누적될수록 벌금의 금액이 높아진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 정부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폐기하고, 전자기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